

구족계 수계승 전원 ‘무소유’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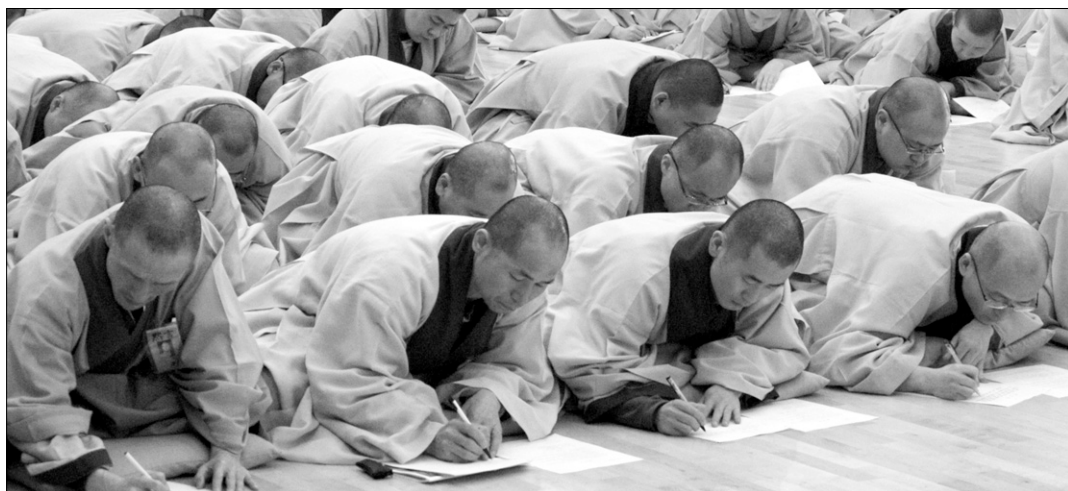
직지사 구족계 수계산림서 유언장 작성... 대가회 등 “종령 폐기하라”

조계종의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여한 예비승 전원이 동참했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종)에서 3월 30일 입재한 조계종 제3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석한 예비승 276명(사미 155명, 식차마나니 121명)은 4월 8일 구족계 수지에 앞서 7일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서약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날 유언장 작성은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대한 시행령인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라 이뤄졌다. 정식 승려가 되는 구족계 수계 전 예비승들의 유언장 작성은 무소유에 바탕한 승가공동체 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의미 외에 향후 종단 스님들의 참여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르면, 종단 스님들은 △구족계 및 사미(니)계 수계 시 △각급 고사 응시와 법계 흡수 시 △분한신고사 주지 품신 시 ‘입적할 경우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겠



4월 7일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3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수계를 앞둔 예비승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

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등을 종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세광 스님(동화사)은 “출가수행자로서 부처님처럼 가깝고 청빈하게 살도록 종단이 제도를 마련해줘 고맙다. 편안히 기쁜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구족계 수계산림이 열린 조

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도 4월 말까지인 분한신고사 시한을 기점으로 5월 3일 제53회 1000일 기도 회향·입재법회에 60여 대종스님이 모여 승려 개인재산 종단 귀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역 원로스님으로 구성된 대가회(회장 해운·대구 여어

선원장)와 대구 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해·대구 대각사 주지)는 4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언장을 제출하라는 종령은 출장과 청규를 위반한 것으로 부처님 정법이 아니다.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종령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ews.com

interview

재산 종단 귀속은 당연한 일

구족계 수계산림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비구계는 정식 부처님 제자 되는 길입니다. 세속 욕망 버리고 불가에 몸 담는 스님으로서 그 재산을 불교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발원은 당연합니다.”

조계종 제30회 구족계 수계산림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하동 쌍계사 조실·사진)은 4월 7일 김천 직지사 원불선원 동산당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죽어서 지고도 못가는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어디로 주겠냐”며 “스님이라면 염주 하나, 주전자 까지도 모두 절 집안에 남기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산 스님은 1975년 쌍계사 주지 때 시아버지가 창건한 절이 며느리에게 넘어간 일, 아들·딸에게 등기를 넘겨 종단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스님이 가졌던 재산이면 불교 종단 상좌들이나 사제들에게 넘어가든지 불교종단에 계속 존



속이 돼야지 왜 그것이 속가 아들딸이 있으면 숨겨 놓은 아들·딸에게로 넘어가고, 아니면 사든 팔것까지 나서서 친척이 달려들어서 다 빼어가고 시아버지는 시주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빼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스님은 “승려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은 지관 前 총무원장 당시부터 추진됐다. 이를 뒤늦게 제33대 집행부에서 자승 총무원장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날 고산 스님은 비구계 수계를 앞둔 예비승들에게 “부처님 제자가 돼 시주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모아 집착하는 것은 지옥가겠다는 것과 같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성호 스님 ‘별빈’

무단 사회법 제소 종무행정 거부 등 조심호계원, 1일 판결

총무원장 선거 당시 괴문서 관련 용의자로 의심 받는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관한 자격무효소송을 냈던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이 무단 사회법 제소와 종무행정 거부 등을 이유로 별빈 됐다.

조계종 조심호계원(원장 정념)은 4월 1일 제70차 조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심판부 결정에 앞서 성호 스님은 심리연기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호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선거 당시 배포된 괴문서와 관련한 호법부의 방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호법부 총무원 10여 명을 무단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종책특보단 구성

해외특별교구·불교연구소 설립 등 본격 추진

조계종이 중앙총회의원으로 구성된 해외특별 교구, 불교연구소 설립, 불교문화콘텐츠개발, 종단 전산화 담당 특보를 두고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외특별교구담당에 무애 스님, 불교연구소 설립 담당에 태연 스님, 불교문화콘텐츠개발 담당에 성호 스님, 종단 전산화 담당에 정범 스님을 종책특별보좌관(이하 종책특보)로 위촉했다. 또 건립중인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에 현조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종책특보 위촉은 중앙총회의원 중 각각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스님들을 모신 것으로, 총무원장스님의 원활한 종



(왼쪽부터)종단 전산화 특별보좌관 정범 스님, 불교문화특별보좌관 성호 스님, 총무원장 담당 무애 스님, 불교연구소 설립 특별보좌관 태연 스님,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

무수행과 종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총무원이 중앙총회의원을 종책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 종무행정을 감시·비판·견제해야 할 중앙총회의원이 집행부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

이 제기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총회가 펴낸 <종현의 이해>에는 “중앙총회는 대외기관·입법기관·종정(宗政) 통제기관·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묵언 수행한다는 안상수 상좌삼겠다”

명진 스님, 봉은사 특별법회서 총무원 측 공격 멈춰

불교단체·총무원·봉은사 토론회 준비 회의결과 ‘함구’

불교단체의 중재로 봉은사 관련 토론회가 준비 중인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봉은사 직영법회 철회를 위한 네 번째 특별법회에서 천안함 침몰과 이에 따른 정치권 비판에 법문의 초점을 맞추고 총무원 측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멈췄다.

명진 스님은 “전우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故 한주호 준위 빈소에 찾아가 기념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공성진 의원이다)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해 없도록 날날이 진실 밝혀라’고 했음에도 국방부 등이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군대 안다녀온 군면제자로서 말 안 듣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명진 스님은 “지난번 내가 총무원장스님과 안상수 대표 회동 사실을 말했다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런 일 없다” (명진 스님을) 본 일도 없다”고 거짓말해 일이 커진 것”이라며 “총무원도 나를 너무 만만히 봐일이 이렇게 됐다. (안상수 의원이) ‘묵언수행한다’면서 말을 잃는다면 이리더 정말 불자가 될 것 같다. 묵언수행 잘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 돼서 돌아오면 내 상좌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김영국 거사가 진실되게 기자회견까지 해 줬다. 용기 있는 행동, 양심에 거러김 없는 행동하는 김영국 거사 같은 사람이 정치도 하고 해야 한다. 김영국 거사를 봉은사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내가 무슨 봉은사를 지고 온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

념을 위해 버티겠다. 한국 불교 새로운 희망의 꽃을 봉은사에서 피워야겠다는 원력이 회향되는 날까지 굴하지 않고 꾸벅꾸벅 곁에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님은 법회 후 다래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집안 일이라고 스님들 의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토론회에서 사부대중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봉은사 직영 전환이라면 결과가 따르겠다”고 말했다.

불교단체가 제안한 봉은사 관련 토론회는 불교단체, 총무원, 봉은사 측 실무자 각 2인이 참석해 진행중이다. 실무자들은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임기구 구성 등 토론회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나,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주지 선거

성문·선문 스님 출사표

4월 22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성문·선문 스님의 각축이 예상된다.

동화사 한주 성문 스님은 9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고불식과 후보추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고승문도 스님들을 중심으로 봉행됐다.

같은 날, 중앙총회의원 선문 스님도 대구 인터불교호텔에서 열리는 추대법회를 통해 주지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선 3월 10일 동화사 조실 진해 스님 등 원로급 스님 10여 명이 유시문을 통해 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대했다.

한편, 주지 선거는 22일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조동섭 기자



제110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귀의 삼보 하옵고,

경인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 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단,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써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110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에 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회동참 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불기 2554년 좋은날

傳戒師 瑞海興教大和尚

입 재 : 불기 2554년 4월 26일 (음력 3월 13일)
회 향 : 불기 2554년 4월 28일 (음력 3월 15일)] 3일간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
동 참 금 : 3만원 (₩ 30,000)
계좌번호 : 부산은행 241-01-001382-7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접 수 : 원 주 실 051)508-3636, 3721
 중 무 소 051)508-3122~5 범어사 각 말사 (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주지 정여 합장